

## 당황될 때 살펴볼 일 ❷

사람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봅시다.

피곤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모신 배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와 위태할 때 당황하였습니다.

요나가 탄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배삿을 주고 배에 올라 배 밑층에 들어가 누워 깊이 잠이 든 배에 폭풍이 불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요나와 그 배에 선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를 당황하게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일로 당황하게 될 때, 해결할 길을 찾아봅시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사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당황하게 된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과 의도에 귀기울여봅시다.

둘째, 우리의 경건생활을 점검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더 의지함으로 안일에 빠져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등불은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더러운 내면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건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당황하게 된 사건의 원인을 헤아려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게 당황할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벗어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그분을 당황하게, 이웃을 불안하게 만든 무례함이 있었나를 차분히 점검해보고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광풍을 다스리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 부르짖어봅시다.

넷째,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점검해봅시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특히 부모님(신자이건 불신자이건)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렸는지, 그분들에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슬프고 섭섭하게 했는지 되돌아봅시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거

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써서라도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 보이고,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도록 합시다.

다섯째, 물질생활을 점검해봅시다.

주님께 약속한 헌금을 다 드리고 딴 곳에 쓰지는 않았는지 남에게 꾸어주고 갚지 않은 것은 없는지, 내가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외면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끝으로 당황할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순간적 감정으로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26-27)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성전이 기도의 장소에서 강도의 굴혈로 바뀌었을 때 당황하고 분노했으며,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순간에도 비둘기의 생명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어려운 사건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본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 김익수 / 관악고등학교 교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